

☐기고 - 우리대학 '식물표본관' 을 소개합니다

# SWU라는 공인된 이름으로 새로운 발걸음 딛는다



**김상태**  
생명과학·화학부 교수

우리학교의 과학관과 생활과학관 사이에 조그만 독립건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성신여자대학교의 전통있는 식물표본관입니다.

이 곳에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생물학과(현 생명과학·화학부)가 탄생한 1968년 이래로 40여 년 이상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집한 식물표본들이 향온·향습 시설이 갖춰진 건물에서 컴퓨터형의 표본장에 체계적으로 배열·보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표본의 숫자는 약 11만

점으로 그 규모는 전국의 대학교 식물표본관들 중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2008, 생물자원통계자료집)의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발간). 이렇게 많은 표본들이 수집돼 이곳에 수장될 수 있었던 것은 생물학과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과 식물분류학 전공 교수님인 오용자 교수님(2006년 퇴임)의 노

력이 있었  
이러한 표  
본들이 이  
늘날, 한  
유전자원  
용되며, 나  
위한 기초  
다. 따라  
무리 강조  
또한 표본  
에 이뤄지  
'역사'가  
입니다.

생물연  
거표본을  
연구를 논  
시하고 있  
련이라는  
구를 했고  
본을 만들  
관했다고  
Kim 234  
때 'FMN  
고, 이 약  
사용하기  
됩니다.

영국 왕  
미국 스미  
하버드대  
관은 'TI

으로



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본관에 보존된 이러한 표본들은 단지 먼지 쌓인 죽은 생물들이 아니라 생물자원전쟁의 시대인 오늘날, 한반도 자생종들의 다양성 파악과 유전자원의 보전·이용을 위한 연구에 이용되며, 나아가서는 국가 생물주권 주장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표본관의 표본 축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관의 '역사'가 표본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그 증거표본을 만들어 표본관에 보관해야 하며,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이를 꼭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가 목련이라는 식물에서 특정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 연구를 위해 쓰인 식물의 표본을 만들어 Florida 대학교 표본관에 보관했다고 한다면, 논문에 그 표본을 'S. Kim 2341, FMNH' 라고 인용합니다. 이때 'FMNH'는 그 표본관 고유의 약어이고, 이 약어는 전세계 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제공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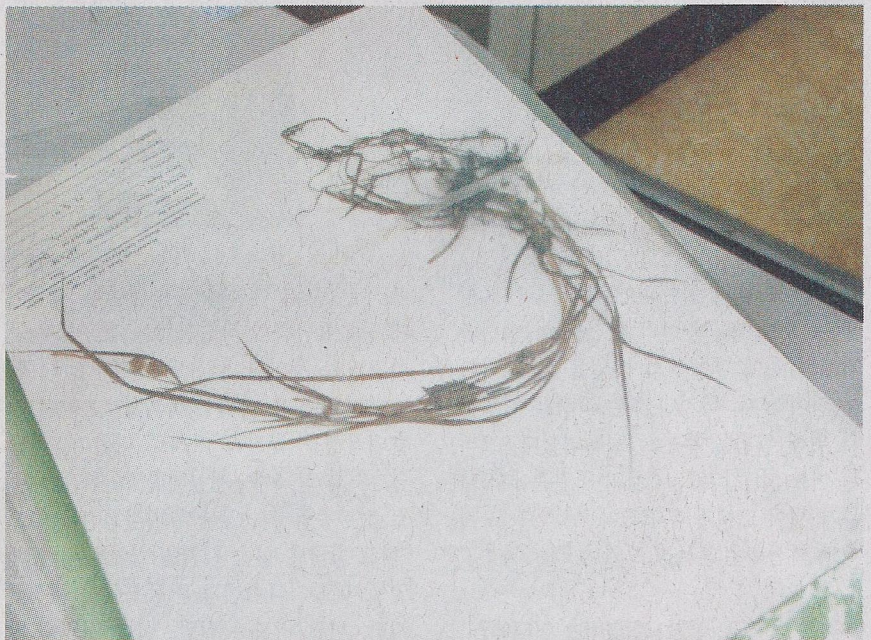
영국 왕립 Kew 식물원 표본관은 'K',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표본관은 'US', 하버드대학교 표본관은 'A', 동경대 표본관은 'TI', 서울대학교 생물학과표본관은

'SNU' 등 전 세계의 우수 표본관들은 모두 고유의 약자를 부여받았고, 이것은 학자들 간에 논문, 학회 등에서의 정보교환 시에 사용되게 됩니다. 2006년 오용자 교수의 퇴임 이후 잠잠히 문이 닫혀있었던 우리학교 식물표본관에 최근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표본관의 국제공인이라 할 수 있는 'Index Herbarium'에 성신여자대학교 표본관의 등재를 신청하여 'SWU'라는 약자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생물

학과 한 교수님이 관리하던 표본관이 국제공인과 더불어 대학 직속 표본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표본관이 'SWU'라는 공인된 이름으로 세계 속의 주요 생물연구 기관으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됐고, 이에 필자는 많은 성신인들이 역사와 전통의 성신여자대학교 표본관의 축적된 표본들을 바탕으로 분류학, 계통학, 진화학,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진화발생학 등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식물표본  
2008, 생  
생물자원  
수집돼 이  
물학과를  
과 전공 교  
의 노